

# 대중음악

통권 28호 2021년

# 대중음악

Korean Journal of Popular Music

통권 28호 2021년

권두언 / 박애경 ..... 5

## ■ 일반논문

사전심의제 폐지 이후 한국대중음악의 규제양상의 변화 / 권정구 ... 9

문화유산 맥락에서의 트롯(Trot)과 레게(Raggae) 비교 연구 / 김병오  
..... 55

실용음악 보컬교육에서의 임프로비제이션(Improvisation)에 대한  
교수자 인식 FGI 연구 / 김은영·박재록 ..... 103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노랫말 속 사랑의 의미 / 김진규·정기인  
..... 137

국내 음악영재교육 내 실용음악 영재교육의 확대방안 모색 / 김희선  
..... 171

미국 미디어업계와 방탄소년단(BTS)의 상관관계 연구  
- 빌보드차트의 미디어그룹 체인을 중심으로 - / 박장혁 ..... 203

인도네시아 케이팝 인기의 현황 분석 및 제언 / 윤영삼·장유정 ... 253

나의 예술노동에 관한 연구 / 이정석 ..... 283

한·일 발라드 음악에 나타나는 음악적 차이에 관한 고찰 - 일본문화개방 이후 2000년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 / 이주원	327
조선팝 판소리의 서사와 더듬 대중성 시론 - 서도밴드의 춘향가를 사례로 - / 장윤희	351
방탄소년단의 〈Dynamite〉 작품 분석 / 정진	383
별점 평가 중심 대중음악 평론 방식 보편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조일동·박관익·정병욱	421

## ■ 특별기고

安東林 선생님과 만남과 너무 갑작스런 이별 / 박찬호	463
한국대중음악학회 회칙	477
한국대중음악학회 연구윤리 규정	483
편집위원회 규정	489
학술논문집 발행 규정	491
논문집 심사 규정	492
논문 투고 규정	494



## 권 / 두 / 언

박애경(연세대학교 교수, 한국대중음악학회 회장)

학술지 발간 호수가 어언 28호에 이르다 보니 우리 학회가 이제 창년기의 절정을 통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든다. 이러한 학회의 이력에 부응이라도 하듯 이번 호에는 12편의 논문과 1편의 특별기고문이 실려, 양적으로 가장 풍성한 학회지를 내놓게 되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미 그 자체로 텍스트이자 담론의 대상이 된 BTS 관련 연구를 위시하여 K-POP의 국제적 소통과 그 효과에 대한 질적 분석 대중음악 교육, 정책, 비평에 대한 학제적 분석과 비교 연구, 국악의 현재화와 대중화의 흐름에 대한 유의미한 진단 등 대중음악 안팎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목직한 분석으로 빼곡하게 채우고 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가사에서 ‘자기유쾌적 사랑’을 읽어내고 그 의미를 인문적으로 성찰한 김진규·정기인의 논문, 〈Dynamite〉를 구조, 리듬, 선율, 화성, 텍스처적 특성으로 나눠 그 음악적 특성을 정치하게 분석한 정진의 논문은 K-POP 텍스트에 대한 본격적 분석의 선편을 잡고 있는 연구로 볼 수 있다. 방탄소년단과 미디어 업계의 대응을 분석한 박장혁의 논문과 인도네시아 K-POP 팬덤 현황을 분석한 윤영삼·장유정의 논문은 문화산업, 매체, 팬덤이라는

K-POP의 간 텍스트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한국에서 발신하고, 세계로 소구되는’ K-POP의 흐름을 동시대적으로 읽어내고 있다. K-POP에 대한 연구가 주로 매체, 산업, 수용 등 컨텍스트적 연구에 치중되었던 상황을 상기해 보면, 의도한 것은 아니나 이번호에는 텍스트와 이를 둘러싼 제반 환경에 대한 분석이 균형 있게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호에는 대중음악 비평과 정책에 대한 메타 비평적 성격의 논문이 실려 있어 대중음악의 현장을 둘러싼 다양한 실천을 조명하고 있다. 1996년 사전심의제 폐지 이후 청소년보호정책으로 전환된 대중음악의 규제양상을 살핀 권정구의 논문에서는 ‘검열’에 초점을 두고 대중음악 정책에 꾸준히 천착한 필자의 노력이 보이고 있다. 예술인이 사회와 맺는 경제적 관계를 ‘예술노동’이라는 개념을 통해 예술인과 예술활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적 실천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정석의 논문에서는 현장과 문헌을 오갔던 필자의 이력이 투영되고 있다. 별점 중심의 대중음악 평론 방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은 조일동·박관익·정병욱 삼인의 논문은 대중음악 평론이 ‘소비되는’ 방식에 대한 도전적, 시론적 문제의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양적 평가로 환원되는 별점 위주의 평론은 비단 대중음악 뿐 아니라 타 장르, 타 매체에서도 동일하게 노정되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시도를 계기로 문화계 전반에 더 큰 반향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실용음악 보컬 교육에서 임프로비제이션의 수용 가능성을 타진한 김은영·박재록의 논문은 재즈의 음악적 특성과 실용음악교육 방법론의 결합은 시도한 연구로 볼 수 있다. 레계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문화유산이라는 관점에서 트롯과 레계의 비교연구를 시도한 김병오의 논문은 문화정책과 관련한 대중음악 비교연구인 동시에, 트로트를 둘러싼 지난한 논쟁에 대한 출구를 모

색한 장르론적 연구이기도 하다. 일본문화 개방 후 오래 경과하지 않은 2000년대 초 한·일 발라드 음악을 화성과 선율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이주원의 연구는 동일한 음악적 원천을 공유하는 양국 발라드 음악에서 보이는 유의미한 차이의 의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서도밴드의 〈춘향가〉를 중심으로 판소리 서사와 더늠의 대중화 가능성을 모색한 장윤희의 논문은 이날치 밴드 열풍으로 일어난 판소리의 대중화, 현재화 가능성을 판소리 본원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조선팝의 시원과 계보에 대한 분석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특별히 원로 대중음악 연구자 박찬호 선생님의 귀중한 증언을 ‘특별기고’ 형태로 접할 수 있다.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일차 자료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1980년대 말, 『한국가요사』를 세상에 내놓고, 2009년 신작에 가까운 증보판을 두 권에 나눠 집필했던 저자는 이 책의 한국어 번역자이자 ‘도반’이라 할 수 있는 안창립 선생과의 특별한 인연을 중심으로 『한국가요사』 1·2가 한국의 독자와 연구자와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8호에 실린 논문과 기고문의 면면을 살펴보다 보니 ‘K-POP에서 조선팝으로의 무한 증식’이 ‘현재형’으로 진행 중인 한국 대중음악계의 현 단계를 차분히 짚어보고, 특별 기고문을 통해 그 전사, 그 전사가 오롯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하는 것은 학제적 대중음악 연구를 지향하는 전문 학술지 『대중음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자평해 본다. 그리고 그 과정이 몇 번 더 쌓이면 대중음악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는 유의미한 시도가 지속 되지 않을까? 다음 호가 나올 때에는 코로나로 빈사 상태에 빠진 공연예술계에 활기가 돌기를, 그리하여 여전히 치열하게 갱신하고, 대중음악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현장과의 소통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귀한 글로 『대중음악』이 채워지기를 기대한다.

